

## 《규원사화》의 발해관계기록자료에 대하여

전 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 역사와 관련한 참고서적들을 볼 때 반드시 주체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41페이지)

우리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책들에는 당시의 역사적사실과 함께 비과학적이고 외국된 내용들도 적지 않게 들어있으므로 역사책들을 볼 때에는 반드시 주체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규원사화》(揅園史話)에도 많은 자료들이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게 되어있으므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규원사화》에 서술되어있는 발해와 관련한 자료들이 역사적사실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검토하는것과 동시에 편찬자의 발해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여 발해사연구에 적으나마 도움을 주려고 한다.

먼저 《규원사화》의 편찬경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규원사화》는 1675년 3월에 편찬되였다. 《규원사화》를 편찬한 사람은 북애자(北崖子)인데 그의 리력에 대하여 전해지는것이 없다.

※ 《규원사화》의 규원은 북애자의 별호이고 사화는 역사이야기라는 뜻이다.

북애자가 생존할 당시인 17세기의 국내형편은 매우 복잡하였다. 두차례의 청나라침략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피해를 가시고 국력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당쟁을 일삼았으며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억압과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반봉건투쟁이 련이어 일어났다.

당시의 현실을 목격한 북애자는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를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역사와 관련한 똑바른 책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 나라 역사를 그릇되게 서술한 중국의 역사자료들을 믿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였다. 그러던중 그는 산속에서 고려사람인 청평산인(淸平山人) 리명(李茗)이 삼국이전의 옛 역사를 쓴 3권으로 된 《진역유기》(《震域遺記》)를 보게 되였다. 그는 《진역유기》를 비롯한 국내외의 문헌들을 연구하여 《규원사화》를 집필하였다.

이 책이 1675년에 편찬되었으나 사람들에게 알려진것은 20세기초이고 또 이 책에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으므로 여기의 자료들을 믿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규원사화》가 위작인가 아닌가를 논하는데서 명백히 해야 할 문제는 첫째로, 이 책의 편찬년대이다. 이 책은 1675년에 편찬되었다고 인정된다. 그것은 이 책의 서문에 《임금의 즉위 2년 을묘 3월 상순》에 편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미 출판된 도서에서도 《규원

사화》의 편찬년대를 1675년으로 고증하고있기때문이다.

《규원사화》가 위작인가 아닌가를 논하는데서 명백히 할 문제는 둘째로, 《규원사화》에 서술되어있는 력사자료들이다. 그것은 편찬자가 보았다는 《진역유기》가 현재 전해지지 않고있으며 사료적가치가 공인된 현존 력사책들에 전혀 보이지 않는 자료들이 《규원사화》에 많이 나타나 의문이 생기게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규원사화》에 서술되어있는 단군 8가와 관련한 자료들이 《조선고대사》, 《조선단대사》(고조선사)에 리용되었다는것은 이 책에 서술되어있는 기타 자료들도 검토하여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발해와 관련한 자료들도 례외로 될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규원사화》의 편찬체계와 발해관계자료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규원사화》는 조판기(肇判記-하늘땅이 나뉘여지다.), 태시기(太始記-첫 시작), 단군기(檀君記), 만설(漫說-부질없는 이야기), 규원사화서(揆園史話序)의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이 체계에서 발해관계자료는 단군기에 서술되어있다. 그가 발해와 관련한 자료를 단군기의 체계에서 서술한것은 발해를 조선력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기때문일것이다.

《규원사화》에 들어있는 18건의 발해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나는 발해의 고왕이 바로 고구려의 옛장수였던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영주에 옮겨가 살다가 신영(薰榮-진충을 잘못 표기한것임)이 란을 일으키는것을 보고 결사비우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돌아오니 고구려와 말갈사람들이 그에 호응하여 일어난것이였을것이다. 그것은 대개 백제의 흑치상지와 같은 옛장수였던것이 명백하다.》

② 《신라때에 속말말갈이라는것이 있어 속수의 땅을 차지하였다.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때 앞장에 섰다. 대개 말갈이란 옛날 속신의 후예이며 또한 단군의 후손이다. 후에 룡이(淩夷-종족이름)에 소속되어 선조들의 옛땅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던져주고 보잘것없는 말갈의 한 족속으로 되었다.》

③ 《대조영이 한번 호소하자 그를 따라나선 사람이 수십만이 되었다. 천문령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마침내 나라의 터전을 닦을수 있었다.》

④ 《고왕이 꿈을 꾸는데 신인이 나타나 금으로 된 부적을 주면서 <하늘의 명이 너에게 있으니 우리 진역(震域-우리 나라)을 통솔할지어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라이름을 진(震)이라고 하고 년호를 천통(天統)이라고 하였다.》

⑤ 《고구려가 망한 때로부터 고왕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의 사이는 겨우 27~28년이였다.》

⑥ 《신라가 마침내 당나라군사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전복하였으나 그후 발해가 일어나 신라와 남북으로 대치해있으면서 서로 원쑤처럼 지내온것만은 아니였다.》

⑦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하 고려에로 와서 의거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다. 고려에 의거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으나 그중 많은 사람들은 공후장상들과 강개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뿌리던 선비들이였다.》

⑧ 《고구려가 망한 후 300년이 지나서는 평양이 가시밭으로 되는것을 면할수 없었고 발해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 사냥을 벌리면 대뜸 이웃의 사람이라고 일컬었으며 그들이 변방고을에 나타나 침범하면 다만 그 피해가 크다고 한을 품었을뿐이다. 그러니 홀한에

서 패한 뒤에 고려어로 달려온 사람들도 나라가 망하여 같은 겨레를 찾아온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⑨ 《신당서》 발해전을 보면 《고(구)려의 옛땅을 서경으로 삼고 압록부라고 하였으며 신주, 풍주, 환주, 정주 네 고을을 거느리었다.》고 하였다.

⑩ 청평산인이 이르기를 《중경현덕부의 땅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단군이 처음 도읍으로 정하였던 곳으로서 옛 임검성 즉 평양이다.》

⑪ 《료사》의 지리지를 보면 《현주 봉선군 상절도는 본래 발해 현덕부의 땅이다. 천현 3년에 동단의 백성들을 옮겨다가 거처하게 하고 그대로 남경성을 삼았는데 13년에 남경을 고쳐서 동경부로 만들고 룡양이라고 하였다.》

⑫ 《지금 룡양은 소말의 남쪽 600여리 되는 곳에 있으니 청평산인의 설과는 심히 어긋난다. 속말수의 북쪽에 발해의 중경현덕부의 땅이 있다. ... 여기서 상경 홀한성까지의 거리는 600리라고 한다.》

⑬ 《신주는 발해의 서경으로 되여야 하고 압록부의 지역에 있었을것이며 신주, 환주의 이름은 또 신시, 환검 등의 글자와 근사하다.》

⑭ 《환도란것은 대개 고구려의 환도이다. ...딱히는 알수 없으나 발해가 이미 <환도>를 <환주>로 이름을 고친것이 혹시 옛날을 추모하는 의도에서 하였을수도 있다.》

⑮ 《홀한성에서 패하고나니 발해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비록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려고 하였으나 수백년이 지나는 동안에 마침내는 그대로 쇠약해진채 없어지는데 이르렀다.》

⑯ 《발해때에는 근본을 잊지 않고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보본단(報本壇)이 있었다.》

⑰ 《대개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였고 고구려는 또 부여에서 나왔으니 발해 시기에는 그래도 옛날의 역사를 전하는것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⑱ 《청평산인이 기록한것은 대체로 발해사람들이 비밀리에 보관하였던 문헌들에 근거를 둔것이였다.》

※ 위의 자료들은 《규원사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8(2009)에서 선택하여 자료검토에 편리하게 배열하였다.

《규원사화》에 들어있는 18건의 발해와 관련한 자료들을 후기신라의 판료학자 최치원(857-?)이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보낸 편지, 《삼국유사》 말갈발해, 《제왕운기》와 945년에 편찬된 《구당서》 발해말갈전, 《신당서》 발해전,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역사책들의 발해관계자료들과 대조하여보기로 한다.

우선 발해의 건국을 전하는 ①, ②, ③, ④, ⑤의 자료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자료 ①에서 북애자는 발해의 고왕을 고구려의 옛장수였던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를 백제의 흑치상지와 같은 인물로 보았다.

※ 흑치상지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항복하였다가 다시 도망쳐 동료들과 함께 임존성을 근거지로 하여 침략군을 반대하는 항전을 벌리던중 실패하고 투항한 백제의 장수였다.((삼국사기》 권 제44 렬전4 흑치상지)

편찬자의 이 견해는 대조영을 이전 고구려의 옛장수로 본 《삼국유사》의 편찬자가 인

용한 《삼국사》, 《신라고기》, 《제왕운기》의 자료들과는 맞지 않는다. 그가 《규원사화》 단군의 앞부분에서 《일연이 지은 력사책》이라고 써놓은것을 보면 분명 《삼국유사》 등을 탐독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책들에 써여있는 《고(구)려의 옛장수 조영》(高麗舊將祚榮), 《이전 려(고구려)의 옛장수》(前麗舊將)라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단군의 이른바 후손인 말갈족의 후예로서 《백제의 장수인 흑치상지와 같은 옛장수》로 보았다. 자료 ②에서 말갈을 단군의 후손으로 본것, 자료 ①에서 대조영을 백제의 흑치상지와 같은 존재로 본것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것이고 발해와 관련한 옛 문헌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것으로서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편찬자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역사가들이 발해주민의 민족별속을 말갈, 속말말갈인으로 본것과는 달리 말갈족이지만 그 선조를 고조선의 건국자 단군이라고 한데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건국자를 직접 말갈인으로 보았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자료 ①, ③은 《구당서》 발해말갈전, 《신당서》 발해전, 《오대회요》 발해전을 비롯하여 발해의 건국과정을 전하는 자료들과 모순되는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술한데서 차이를 보일뿐이다.

자료 ③에 대조영을 따라나선 사람이 수십만이라고 한것은 《오대회요》 발해전에서 《발해에 승병정호가 40만》이었다는 자료와 대조해보면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반영한것으로 볼수 있으며 천문령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마침내 나라의 터전을 닦을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도 《구당서》와 《신당서》의 발해관계자료를 요약하여 알기 쉽게 론한것으로서 역사적사실에 맞는것이다.

발해의 건국년대와 초기국호, 년호는 자료 ④, ⑤에 보이고있다. 《규원사화》의 편찬자는 자료 ⑤에서 고구려가 망한 때로부터 고왕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의 사이는 겨우 27~28년이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한것이 못된다. 그것은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였는데 그로부터 27~28년후에 발해가 건국을 이룩한것으로 보면 695~696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년대는 발해의 전신국가인 진국의 성립년대와도 맞지 않으며 또 발해의 건국년대와도 맞지 않는다.

《삼국유사》(권1 기이2 말갈발해)와 《제왕운기》(권 하)에서는 발해가 칙천후 원년 갑신 즉 684년에 성립되었다고 서술되어있다. 그런데 《류취국사》(권193 발해 상 환무 연력 15년 4월 무자)에서는 698년으로 써여있다. 684년은 발해의 전신국인 진국의 성립년대를 말하는것이며 698년은 진국을 이어 세워진 발해의 성립년대를 말한다.

이상의 사실은 북애자가 진국을 발해의 전신국가로 보았다면 고구려가 멸망한 때로부터 발해의 전신국가인 진국이 세워질 때까지의 사이를 668년부터 684년까지로 보고 계산을 하던가 또는 진국을 이어 세워진 발해의 건국년대인 698년에 맞추어 계산하여야 겠으나 진국의 건국년대도 아니고 발해의 건국년대도 아닌 년대에 맞추어 발해의 성립시기를 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 고구려가 멸망한 때로부터 16년후에 진국이 세워지고 30년후에 발해가 세워졌다.

그리고 자료 ④에 보이는 고왕의 꿈이야기도 이 책에 처음으로 나타나는것이므로 그것을 믿을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발해의 국호를 진으로, 년호를 천통으로 써놓은

것은 역사적사실을 반영한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자료 ⑥, ⑦, ⑧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자료 ⑥은 발해와 신라를 다같이 우리 민족의 국가로 보면서 《남북국》의 존재를 인정한것으로 보아지며 또 두나라의 관계가 대결과 평화적인 관계로 본것은 정확한것이다. 그리고 자료 ⑦, ⑧은 발해유민들의 고려이주와 관련한 사실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면서도 발해유민들의 이주가 같은 겨레를 찾아온것으로 강조함으로써 역사적사실을 반영한것이다. 그러나 발해유민들의 고려이주와 관련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다음으로 ⑨, ⑩, ⑪, ⑫, ⑬, ⑭ 자료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자료 ⑨, ⑪은 《신당서》 발해전의 자료와 《료사》 지리지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것으로서 1차자료로 리용하기 어렵다. 자료 ⑩은 역사적사실과 완전히 틀리게 서술한것이다. 그리고 자료 ⑫는 룡양이 소밀(중국 길림)의 남쪽 600여리 되는 곳에 있는것이 틀리며 중경현덕부의 위치와 중경현덕부에서 600리 떨어져 상경 홀한성이 있다는것을 밝힌것은 대체로 맞는것이다.

또한 자료 ⑬은 발해의 서경이 오늘의 중국 집안(길림성 집안시)에 자리잡고있었으므로 서경 압록부의 소재지인 신주도 이곳에 있었다고 한것은 맞는것이지만 신주, 환주의 이름이 신시, 환검 등의 글자와 근사하다고 하여 그와 동일한 지역으로 보는것은 틀린다.

자료 ⑭에서 환도를 고구려의 환도와 결부시킨것은 억지감을 보일뿐아니라 발해가 환도를 환주로 고친 리유도 추측에 지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료 ⑮, ⑯, ⑰, ⑱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자료 ⑮는 발해멸망후의 사실을 매우 일반적으로 서술한것으로서 자료적가치는 별로 없으며 자료 ⑯은 보본단(報本壇)의 실체가 발굴된것이 없을뿐아니라 다른 역사자료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자료 ⑰은 편찬자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견해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확증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며 발해시기에 옛 역사책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본것도 정확한것으로 된다.

자료 ⑱에서 청평산인이 발해사람들이 비밀리에 보관하였던 문헌들을 리용하였다는것은 확인할수 없는것이다.

이상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규원사화》의 편찬자가 크게 5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발해사를 론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발해의 건국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둘째로, 발해와 신라의 관계를 시사하였으며 셋째로, 발해의 군현과 지리에 대하여 약간의 논의를 하였으며 넷째로, 발해멸망후의 발해유민들의 고려이주를 개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다섯째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것을 강조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앞에서 자료가 정확한가 또 틀린것인가를 구별한바와 같이 《규원사화》의 편찬자가 남긴 18건의 자료중에서 ③, ⑥, ⑦, ⑧, ⑨, ⑪, ⑰의 자료는 발해사연구에 자료로 리용할수 있는 가치를 가지며 자료 ②, ④, ⑬, ⑭, ⑯은 제한성을 가지는 자료들이며 자료 ①, ⑤, ⑱은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는것임을 알수 있다.

《규원사화》의 발해관계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편찬자가 일부 제한성을 가지거나

틀린 자료들을 서술하기는 하였지만 많은 자료들이 사실과 일치하며 발해와 관련한 역사책들을 적지 않게 탐독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발해를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로 보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규원사화》 단군기에서 발해문제를 논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편찬자가 12세기 이후부터 발해를 우리 민족사밖의 역사로 취급하거나 말갈, 속말갈같이 세운 나라로 인식하던 《삼국사기》(1145년 김부식 편찬), 《삼국유사》(13세기 말 일연 편찬), 《동국통감》(1484년 리항, 서거정 편찬), 《동사찬요》(17세기 편찬), 《동사》(17세기 편찬) 등 여러 역사편찬자들보다 많이 전진한 것으로 보아진다. 더우기 《발해고》를 편찬한 류득공(1748-?)을 비롯한 실학자들보다 한세기 이전에 벌써 발해를 우리 나라 역사에 포함되는 나라로 본 것은 발해의 성격에 대한 편찬자의 인식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며 그의 긍정적인 견해들이 실학자들의 발해사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한편 《규원사화》에는 발해사에 대한 편찬자의 인식부족으로 하여 말갈을 고조선의 시조왕인 단군의 《후손》으로 보았으며 발해의 건국년대를 틀리게 알고 있었고 역사기록과 유적발굴에 의하여 알려지지 않은 발해에 보본단이 있었다는 자료를 비롯하여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족점이 있는 일부 자료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원사화》와 거기에 들어있는 발해관계 자료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발해, 천문령